임실군, 씨름 전지훈련 인기

맞춤형 훈련장·다양한 체육시설로 전국 씨름선수단 방문 증가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씨름장이 맞춤형 전지 훈련장으로 전국 씨름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명실상부 씨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에 위치한 씨름장이 맞춤형 전지 훈련장으로 전국 씨름선수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명실상부 씨름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8일까지 충남 예산 삽교초를 비롯한 초등학교 17개 팀 130명이 전지훈련을 다녀갔다.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는 대전 계룡디지텍고를 포함한 11개팀 112명이 임실군 씨름장에서 훈련에 참여하며, 기술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난 11일 임실 씨름장 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2020년 씨름장 준공 이후, 임실군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씨름선수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하계 전지훈련으로 18개 팀 145명이 방문하고, 올해 1월 동계 전지훈련으로 28개 팀 팀 242명이 임실군을 찾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선수단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임실군이 씨름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관내 숙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실군 청소년수련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이 가능하고 푸짐한 아침 식사도 제공되어 참여한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지역을 찾는 전지훈련 팀이 늘어남에 따라 관내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특히 임실군 씨름장의 전국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씨름 연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총 25억 원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 중인 가운데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심 민 군수는"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을 찾아주신 씨름선수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훈련과 체류에 불편함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땀과 열정이 가득 담긴 전지훈련이 결실을 맺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최선'

순창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순창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26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총사업비 총 2억원을 투입해 한 가구당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 없는 개·보수 공사로, 주요 지원 내용은 △단열벽체 시공 △고효율 창호·보일러 설치 △문턱 제거와 장판 보수 △화장실·주방 개보수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붕 개량(슬레이트와 강판 교체)과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교체하는 정화조 공사의 경우 최대 1,0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저소득 가구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수리가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원시, 시민 현장 소통 강화

최경식 시장, '시민공감 열린대화' 19일까지 진행

남원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2025년 시민공감 열린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화는 지난 1월 20일 운봉읍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최경식 시장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 23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며 지역 주민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다.

이번 열린 대화의 핵심은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남원의 미래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계하는 자리로, 열린 대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정책 제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으로, 열린 대화를 통해 접수된 건의 사항은 일회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앞으로 시민공감 열린대화 외에도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해결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남원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역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춘향제 제1기 대학생 SNS 홍보단 모집

남원시는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남원시와 춘향제의 숨은 매력을 알릴 '제1기 대학생 SNS 홍보단'을 모집한다.

대학생 SNS 홍보단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관광, 축제, 명소, 맛집 등 지역 전반을 알리는 온라인 홍보대사로,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20일까지이며 선발 인원은 30팀으로 기자팀 20팀, 영상콘텐츠팀 10팀을 모집한다.

자격은 평소 남원시와 춘향제에 관심이 많고 스마트폰, 디지털기기에 능숙하며 매월 1건 이상의 창작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또는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최대 3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포스터 QR 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소셜미디어 활용 능력, 관련 경력, 포스팅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하며, 보유한 SNS 채널의 활동지수가 높거나 외국인 학생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발 인원은 2월 21일 개별 통보, 최종 선발되면 위촉일로부터 약 3개월간 남원시 춘향제 축제, 시정 소식, 관광, 명소, 맛집, 문화, 생활정보를 취재해 SNS 콘텐츠로 소개하게 된다.

이들은 오리엔테이션 및 SNS활용 전문교육을 거쳐 기자증을 발급받게 되며 매월 1건 이상의 콘텐츠를 작성한다. 콘텐츠 채택 시 원고료(기자팀 5만원, 영상콘텐츠팀 10만원)가 지급되며, 우수활동자로 선정되면 춘향제 방문 시 숙박료 및 취재비 지원은 물론 무료 한복대여, 참여 프로그램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운영

순창군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인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해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9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58명이 1,428필지, 약 132만 5천㎡의 토지를 확인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재산 상속의 경우 당시 법률에 따라 장자 상속이 원칙이므로, 호주 상속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실시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2월 18일부터 3월 6일까지 신덕면을 시작으로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이동검진차량으로 '상반기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이동검진차량으로 실시되며, 국가 암검진(위암,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은 임실군과 협약을 체결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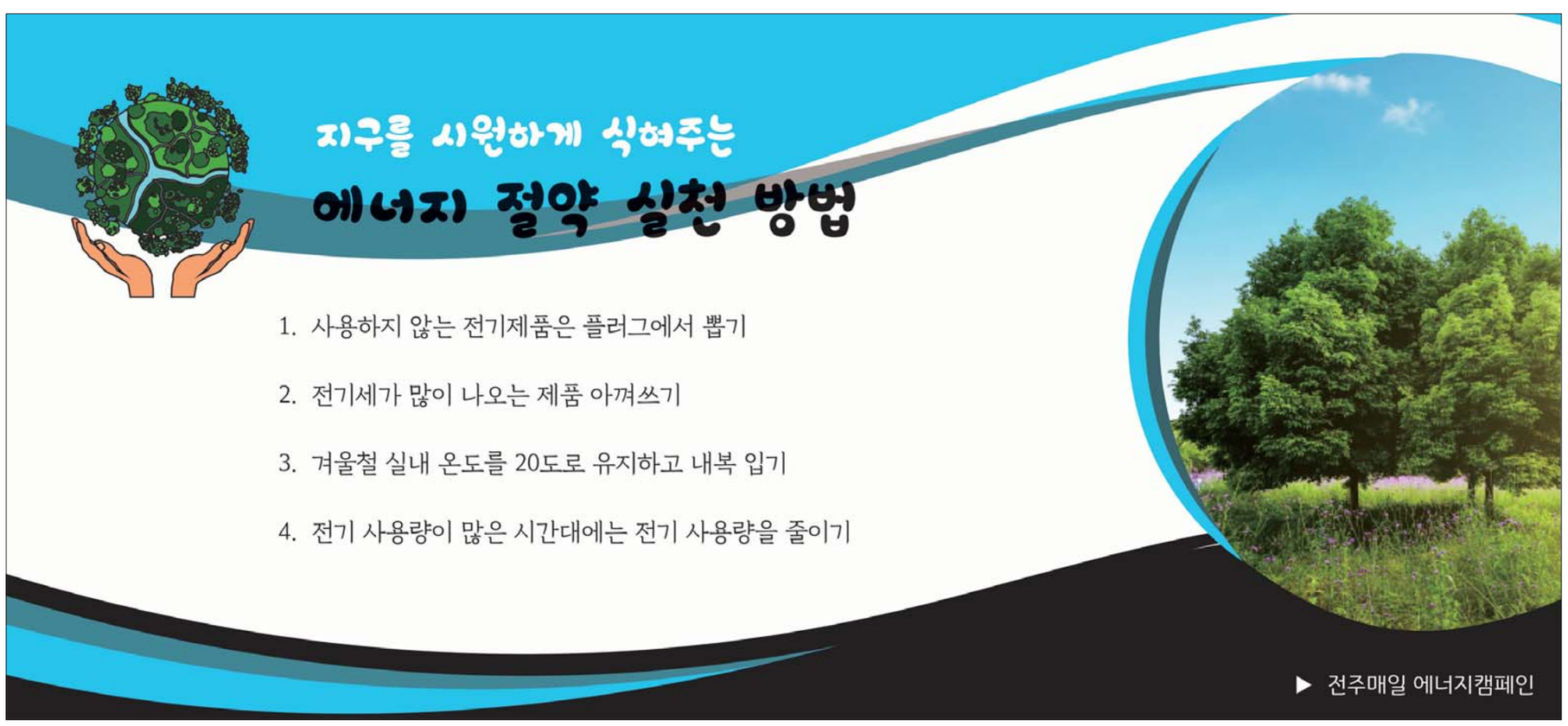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군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이동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검진 대상자가 대상이다.

1차 건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신장,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 청력검사, 혈압 측정 및 흉부 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 검사 등이다.

검진은 무료로 실시되며 검진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동 검진 장소를 방문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 개최

남원시가 지난 10일, 2025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해 농가별 유기질비료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관련 부서와 농업인 대표, 농협시지부, 유기질비료 구매조합 등이 참석하여 농가별 공급물량과 공급업체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안건들이 논의되었으며, 농가의 요구와 예산을 고려하여 최적의 공급 기준이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농가별 유기질비료 공급을 위해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각 농가의 재배 작물과 토양 상태에 맞는 유기질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비료 공급 후에도 지속적인 품질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져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